

코트디부아르-김성윤*임정산(상진,환) 선교사 가정

< 첫번째 기도편지 23 APR 2012 >

봉쥬르~!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불어이지만, 기도편지의 첫인사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저희 가족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품고 5월 3일 오후 11시 55분 비행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무척 감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선교지가 늦게 발표되어서도 그렇지만 온누리에서 서부아프리카로 첫 파송이기에 더욱 그러한가 봅니다.

단지 아이들(상진,환)은 정리할 시간이 너무도 모자르다며 투덜대지만, 사실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이 점점 커지는 모양입니다.

지난주에 양지에 있는 순교자기념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다짐으로 묵상하며 올라가는 중에 사진 한장 찍으며 기념해 보았습니다. 한턱을 마치고 5년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족이 들어가는 서부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로부터 1960년 완전히 독립한 국가이지만, 프랑스군 약 4000명, 유엔평화유지군 약 6000명이 주둔하고 있으며 친프랑스 정책으로 이번 프랑스의 총선 결과에 의해 다시 내전이 일어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이기도 합니다.

늘 기대해오던 비전과 계획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어놓은 상태이며, 언어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갖길 소원하며 현지인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써 주신 기도제목을 위해서 저희도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입니다 ^^

-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족모두가 늘 갖고 느낄 수 있도록
- *장시간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 *게스트하우스에 잘 머물 수 있도록
-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할 수 있도록
- *그곳에서 예비하신 도움의 사람과의 만남에 축복이 있도록



< 양지 순교자 기념관 15 APR 2012 >

(<http://mamahouse.com> 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